

‘정관장’ 홍삼의 힘… KGC인삼공사 ‘통합우승’ 쾌거

소속 선수들에 홍삼 제품 제공
국가대표들도 먹는 안전 식품

우승 기념 공식 온라인몰서
기획전·할인·이벤트 진행

KGC인삼공사가 정규리그 우승에 이어 통합우승까지 거머쥐며 ‘정관장’ 홍삼의 힘을 입증했다.

프로농구 안양 KGC인삼공사는 올 시즌 정규리그를 우승한데 이어 플레이 오프 챔피언결정전에서 7차전 연장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승리하며 ‘통합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지난 3월 EASL(동 아시아 슈퍼리그) 챔피언스위크에서도 우승을 차지하며, KGC인삼공사는 올 시즌에만 트로피를 3개나 거머쥐었다.

KGC인삼공사 선수들은 통합우승 원동력의 한 축으로 정관장 홍삼의 힘을 꼽았다.

홍삼은 식약처로부터 면역력 증진, 피로개선, 기억력 개선, 혈소판 응집억



프로농구 안양 KGC인삼공사가 플레이오프 챔피언결정전에서 7차전 연장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통합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KGC인삼공사

제를 통한 혈액흐름에 도움, 항산화 작용 등의 기능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홍삼은 인삼을 수증기로 짜서 말리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사포닌, 홍삼당체, 아미노당, 미네랄 등이 조화를 이뤄 피로물질 농도를 감소시키고 에너지 생성 호르몬을 촉진해 운동선수들과 같이 체력소모가 많은 이들을 위한 선물용으로도 인기가 높다.

또한 집중력 향상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스포츠 선수들에게는 건강관리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 더욱이 요즘은 간편하게 휴대와 섭취가 가능한 제품들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KGC인삼공사는 소속 선수들에게 1년 12달 정관장 홍삼 제품을 제공하고 있다. 대표 제품인 ‘홍삼정’부터 ‘에브리타임’, ‘달임액’ 등 다양한 제품을 시

기에 맞게 공급한다. 선수들의 체력 관리와 집중력 향상을 위해서는 물론 회사를 대표하는 스포츠 선수들인 만큼 회사의 제품들을 직접 체험하고 느껴보라는 취지다.

홍삼 효과를 본 선수들은 자연스럽게 정관장 홍보 전도사를 자처했다. 주변 지인은 물론 외국인 선수와 타 구단 선수들에게 홍삼의 효과를 전달하고,

이를 통해 홍삼을 접한 이들이 늘며 타 구단 및 기업에서도 대량 주문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또한 올림픽, 세계선수권 등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에게도 제공돼 경쟁력을 제고하고 안전한 식품으로 인정받고 있다.

KGC인삼공사이종림 스포츠단단장은 “매일 꾸준히 섭취한 정관장 홍삼이 통합우승에 큰 도움이 됐다”며 “내년에도 선수들이 좋은 활약을 펼칠 수 있도록 정관장 홍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관장 공식 온라인몰에서는 KGC인삼공사 프로농구 통합우승을 기념해 ‘인삼즈가 선물을 드립니다!’ 기획전을 오는 14일까지 진행한다. ‘홍삼정 에브리타임 밸런스’, ‘활기력 부스터’, ‘찐생’ 등 정관장 인기 제품부터 콤비타, 아하핏 등 입점 제품까지 다양한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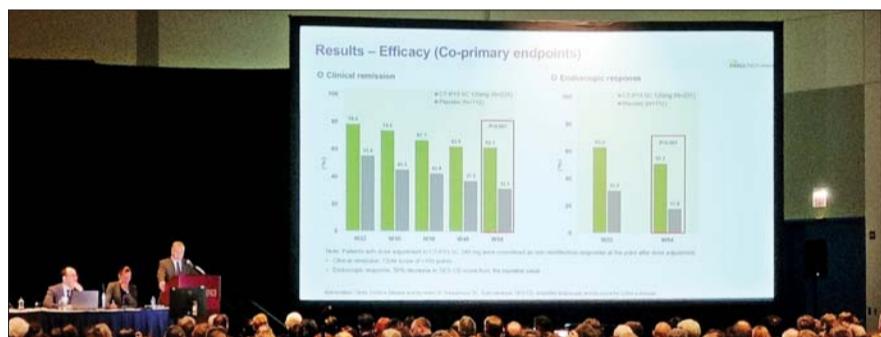
K-신약, 美소화기학회서 경쟁력 입증

셀트리온, ‘램시마SC’ 임상 결과 공개
대웅제약, ‘페수클루’ 연구 데이터 발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세계 학회에서 자체 개발 신약의 경쟁력을 입증했다. 글로벌 시장 확대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셀트리온은 6~9일(현지시간) 미국 시카고 및 온라인에서 진행된 ‘2023년 미국소화기학회(DDW)’에 참가해 인플릭시맙 피하주사 제형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램시마SC’의 글로벌 임상 3상 결과 2건을 각각 구두 발표 및 포스터로 공개했다고 10일 밝혔다. 셀트리온은 올해 램시마SC의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기대하고 있다.

셀트리온이 이번 학회서 구두 발표 세션과 포스터 세션을 통해 각각 공개한 연구는 크론병 환자 343명, 궤양성 대장염 환자 43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글로벌 임상 3상 결과다. 우선 셀트리온은 임상에 참여한 환자를 대상으로 6주차 까지 램시마 정맥주사(IV) 제형을 투약했다. 이들 중 램시마 IV 유도요법에 임상반응을 보인 환자를 10주차에 2대1 비율로 램시마SC 투여군과 위약 대조군으로 무작위 배정하고 이후 유지 치료에서 위약 대비 램시마SC의 유효성 측면



셀트리온이 이달 6~9일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미국소화기학회서 ‘램시마SC 유효성 및 안전성 확인’ 글로벌 임상 3상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통계적 우위 및 안전성을 확인했다. 임상 결과에 따르면, 램시마SC로 유지 치료를 받은 후 54주 시점에서 위약 대조군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치료 유효성 결과가 도출돼 램시마SC의 우월성이 입증됐다. 해당 연구 결과는 셀트리온이 램시마SC의 미국 신약 허가를 목적으로 진행한 임상 데이터다.

대웅제약 역시 이번 학회에서 ‘페수클루’ 부스를 마련하고, 미란성 위식도 역류질환(GERD) 환자 대상 효능을 입증한 임상데이터를 발표했다.

성인경 건국대학교 소화기내과 교수 주도의 임상시험은 GERD 환자에서 1 일 1회 페수클루의 식전 투여 대비 식후 투여에서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했다.

다. 페수클루 투여 후 2주 및 4주 시점까지 점막 결손이 완전히 치유된 환자의 비율을 확인한 결과, 식전 투여군과 식후 투여군 간의 치료 효과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약물 이상반응 발생률 역시 투여군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중대한 약물 이상반응 역시 발생하지 않았다.

중국에서 진행된 임상 3상 결과도 발표됐다. 이번 임상 3상 시험은 유효성 평가 지표인 8주까지의 상부위장관 내 시경 검사 상 확인된 점막 결손 치료율을 비교했다. 연구 결과, 페수클루 투여군은 97.3%, 에소메프라졸(40mg) 투여군은 97.9% 치료율을 확인해, 대조약과 치료 효과의 차이가 비열등함을 입증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이대서울병원, 대동맥질환 ‘명의’ 영입

‘유퀴즈’에도 출연한 송석원 교수

tvN ‘유퀴즈 온 더 블럭’에도 출연했던 강남세브란스병원 심장혈관외과 송석원 교수(사진)가 이대서울병원으로 영입됐다.

이대서울병원은 송 교수가 6월 중순부터 이대서울병원에서 이대대동맥혈관병원장으로 근무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송 교수는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최고 대동맥질환 분야 명의 중 한 명이다. 강남세브란스병원 대동맥혈관센터는 지난해 대동맥수술 620례를 달성, 국내 의료기관 기준 연간 최다 건수를 기록했다. 수술을 요하는 국내 대동맥 환자 5명 중 1명이 이 병원에서 수술한 셈이다. 이대서울병원은 국내 처음으로 대동



맥혈관병원을 설립함과 동시에 송 교수 영입을 통해 대동맥질환 특화병원으로 거듭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영입은 국내에서는 이례적으로 송 교수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송 교수와 함께 대동맥 혈관팀을 이루었던 심장혈관외과, 영상의학과, 마취과 교수진 및 체외순환사, 전문간호사를 함께 영입해 눈길을 끈다.

/이세경 기자

스테로이드 없는 구내염 치료제 ‘스토케어’

제일헬스사이언스, 창상피복제 출시

존 역할을 한다.

제일헬스사이언스는 입안 상처 케어 용 창상피복제인 ‘스토케어’를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스토케어는 구내염 통증 완화를 돋는 점착성 투명 창상피복제로 생체점착성을 가진 폴리비닐피롤리돈(PVP) 성분이 구강 내 보호막을 형성하고, 포타슘 소르바이트 성분이 적용 부위에 살균보

제품 내 개별 스틱이 동봉되어 있어, 창상 부위에 정확한 도포 및 위생적인 사용이 가능하다.

스토케어는 전 연령대가 사용 가능한 제품으로 스테로이드, 항생제, 마취제가 들어있지 않아 영유아의 유행성 구내염 및 보철물 사용 등으로 인한 노인들의 구강 내 상처 발생에도 사용 가능하다.

/이세경 기자